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무녀리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무녀리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무녀리

완성된 이름

무녀리

한눈에 보는 기록

뜻

한 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문열이	-	-	-
무녀리	-	-	-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한 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무녀리'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한 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

☞ 무녀리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무녀리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문열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무녀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문열이
19세기20세기
- 무녀리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문열이, 무녀리



무녀리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무녀리’의 옛말인 ‘문열이’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문열이’는 한자어 ‘門’을 한글로 표기한 ‘문’과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를 뜻하는 ‘열-’이 결합한 ‘문열-’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문’은 ‘자궁문’을 뜻한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이후 ‘문열이’를 연철 표기한 ‘무녀리’가 나타나, 20세기까지 ‘문열이’와 ‘무녀리’가 함께 쓰였으나 ‘무녀리’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어원적으로 ‘무녀리’는 암컷의 자궁문을 처음으로 열고 태어난 새끼를 뜻한다. 처음 태어난 새끼가 뒤에 태어난 새끼들보다 작고 허약한 점에서 말과 행동이 부족한 느낌을 주는 사람으로 비유하게 되었고 현대어에서는 주로 이런 용법으로 쓰인다.



문헌 속의 무녀리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문열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문열이

📖 출처 1880 한불사전 252

용례 01

66 문헌 용례

문열이 [開門首生者].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122

용례 02

66 문헌 용례

문열이 [首産].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344

용례 03

66 문헌 용례

문열이 [首産].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문열이, 무녀리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문열이, 무녀리

출처 1937 조선일보 3월 24일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맛아들도 맛아들 나름이니까 문열이로 욱할 것은 업지만은 그러케 큰 아이들은 커서까지 어
떠한 결함(缺陷)이든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어사전

용례 05

66 문헌 용례

문열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9 조선 말 큰 사전(2)

용례 06

66 문헌 용례

무녀리.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66 매일경제 8월 8일 4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그러나 『무녀리 올챙이도 뿔 날은 있다.』고 진영을 재정비한 증권 시장은 값비싼 체험을 거울 삼아 1진 3주(一進三注)의 거보를 내딛기 시작하였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75 경향신문 12월 25일 5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느 때 같으면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도토리야, 오줌싸개야, 무녀리야」할 은아가 영 못 본 체 손에 든 것을 소중히 쉼터 품에 감춰 버리는 거여요.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무녀리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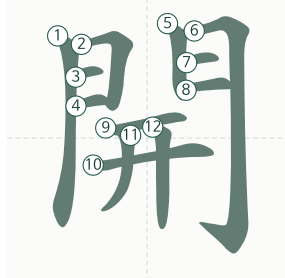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무녀리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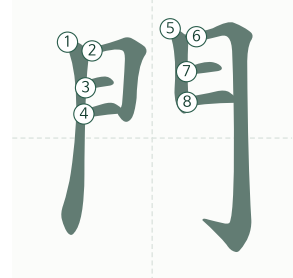
뜻·음 열 개
총 12획 · 부수 門



hanja.wordrow.kr/한자/開/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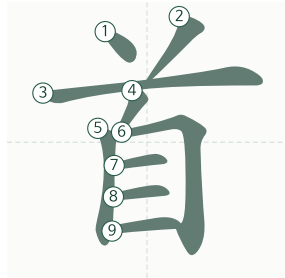
뜻·음 문 문
총 8획 · 부수 門



hanja.wordrow.kr/한자/門/

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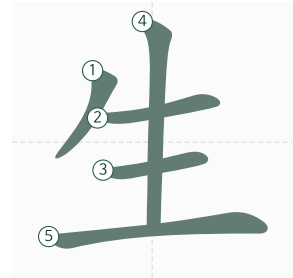
뜻·음 머리 수
총 9획 · 부수 首



hanja.wordrow.kr/한자/首/

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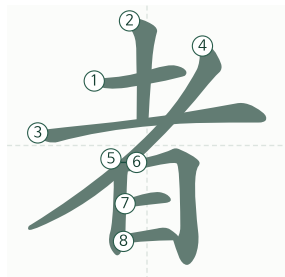
뜻·음 날 생
총 5획 · 부수 生



hanja.wordrow.kr/한자/生/

者

뜻·음 놈 자
총 9획 · 부수 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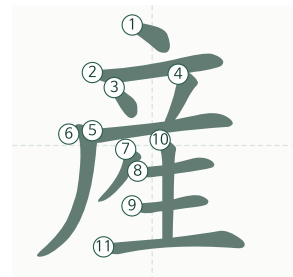


사전 9획 · 획순 그림 8획

hanja.wordrow.kr/한자/者/

産

뜻·음 낳을 산
총 11획 · 부수 生



hanja.wordrow.kr/한자/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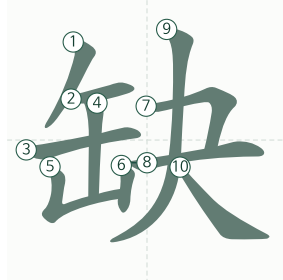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缺

뜻·음 이지러질 결

총 10획 · 부수 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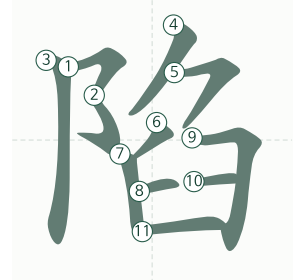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缺/

陷

뜻·음 빠질 함

총 11획 · 부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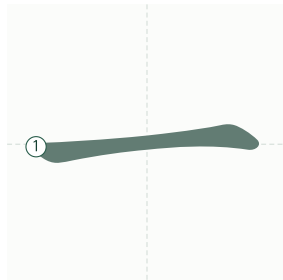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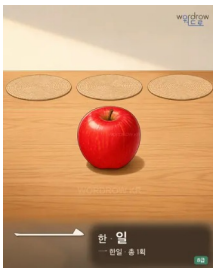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陷/

一

뜻·음 한 일

총 1획 · 부수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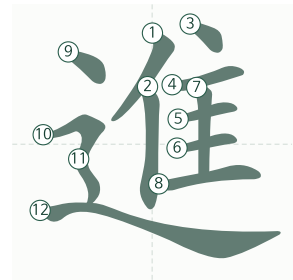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一/

進

뜻·음 나아갈 진

총 12획 · 부수 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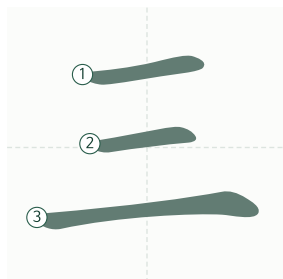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進/

三

뜻·음 석 삼

총 3획 · 부수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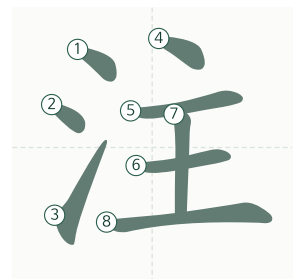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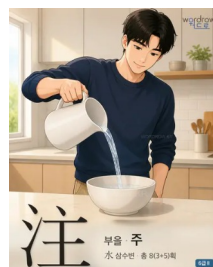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三/

注

뜻·음 부을 주

총 8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注/